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개관 25주년 기념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

~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수상작품집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PHOTO : ISEKI YOSHIYASU

발행 : 2022년 3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목 차 Contents

- 02/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개관 25주년 기념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
~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에 관하여
-

04/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수상작품

- | | |
|------|--|
| 최우수상 | 私たちは知らないうちにいつも繋がっている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다 / 김성준 |
| 우수상 | 다시 이어진 마음길 / 신정호 |
| 장려상 | 26일짜리 전국일주를 통해서 느낀 나의 일본 / 유병관 |
| 장려상 | コーヒーが繋いだチェジュと私
커피가 맺어준 제주와 나 / 히가키 유타로(檜垣祐太郎) |
| 장려상 |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 김소현 |
-

14/ 제주의 여러분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소개합니다.

- I. 예술·건축 (芸術・建築)
 - II. 자연·산업 (自然・産業)
 - III. 전통문화 (伝統文化)
 - IV. 먹거리 (グルメ)
-

20/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책자로 엮으며
이세끼 요시야스 주제주일본국총영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개관 25주년 기념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
~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에 관하여

제주의 많은 분들이 제주와 일본 사이에 깊은 인연을 느끼면서 친근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주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오래 전 이야기로부터 현재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일본의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기에, 제주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022년 1월 1일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제주도민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 이벤트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개최하여 작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한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에세이로 보내 주셨는데, 너무나 높은 수준의 작품이 많아서 수상 작품을 선정하는 데 아주 어려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개관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총영사관도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제주와 일본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たちは知らないうちにいつも繋がっている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다

김성준

現在、コロナ渦において、昔のように簡単に互いの国へ旅行ができる状況ではない。そのため、多くの人が旅行が再開することを待ちながら、オンラインで映像を通じて自分が旅行している気分を味わっている。私もその一部である。私がこれを書く理由は、自由に日韓の往来できた時の思い出を文字で書き残すためでもあり、この文を読む人達にも自分の思い出を、伝えるために書くことにした。

私が日本で暮らしていた時、建物のランキングをつける番組をみたことがある。これが後に、済州で、日本人とのつながりを感じるきっかけとつながる。その中で記憶に残った建物は日本で建築賞を授与した長野県の茅野市民図書館だった。ガラス帳りの外装が特徴で、自然の中にある開放的な空間が唯一無二な印象を受けた。さらに、自然に覆わ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駅と近く便利な立地で本が好きな私にとっては、夢のような空間だと感じた。しかし、訪れる機会がなく心残りになっていた。時間が経つに伴ってその心残りを忘れつつあったが、済州旅行をした際に思い出すきっかけとなる建築物と出会った。それは「グラスハウス」という建物であった。グラスハウスは、同じくガラス張りで開放的な建築物という点で共通していた。日本のテレビ番組で目にした建物のおかげで、グラスハウスに興味を持ったが、調べてみると偶然にもグラスハウスは日本の建築家である安藤忠雄氏がデザインした建物であった。茅野市民図書館を造った建築家と違う人であったが、済州でも魅力的に感じた建物は、偶然にも日本人の建築家によって創られたものだった。グラスハウス以外にも日本系の建築家が造った建物がいくつもあって驚いた。コロナで国同士の往来はできないが、韓国国内にいても、ふとしたところで日本とのつながりを感じ、私が知らないだけでたくさんのつながりがあるのだらうとワクワクする気持ちになった。

もう一つの繋がりを感じたのは、日本で住んでいた際に親知らずができて苦労したときである。この時に、日本と済州の似た文化を感じた。それは、親知らずを抜いた帰り道に、偶然、通った神社がきっかけである。歯を抜いた後の痛みで苦しんで帰っていると、日本で1つしかない歯の神様がいる、歯神社という所を通った。神社の前にはなで石という石があり、撫でると痛みがなくなると書いていたので撫でた思い出もある。一方で、済州旅行の時に済州は蛇神に仕えるため蛇に対して良いイメージを持ち、蛇だけでなく石や厨房道具など様々な神に使える土俗信仰だと聞いた。これらの経験から、日本の歯神と済州の蛇神は、様々な神に仕えるところがお互いに似ていると思った。文化が似ているというのは昔からお互いに交流があり、お互いの文化に影響を受けたという証拠でもある。今まで書いた似ている文化を上手に活用すれば日本と済州はお互いにもっと良い影響を及ぼして関係にも発展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

私はこの2つの経験から、自分から見て互いの国の共通点はないように見えても、知れば知るほど、意外な関わりがあったり、共通の文化があったりすると改めて感じた。今はコロナの影響もあり、世の中が混乱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いる。国を越えての往来はまだ先が見えないが、自分の好きな日本に行けないからこそ、普通に生活しているだけでは分からない、歴史や文化を学び、触れることはとても大切だと考えている。今の時代は、同じ思考を持った人だけで団結するのではなく、異なるからこそ互いに理解しようとする力が、より重要になってきていると感じる。そのため、一人一人の意識と行動が最も重要だと考える。私が感じた済州と日本の繋がりは、極一部であり、人によって感じる繋がりがたくさんあると思う。その繋がり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옛날같이 간단히 양국 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여행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신이 여행하는 듯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이 글을 통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던 때의 추억을 글자로 남기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내가 느꼈던 추억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일본에 있었을 때, 건축물 랭킹을 정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그중에 기억이 남는 건물은 일본 건축상을 받은 나가노현의 치노시민도서관이었는데 이 건물 덕분에 제주도에서 일본인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평범한 건물의 도서관이 아닌 통유리로 건축된 외관이 특징이며 자연 속의 개방적인 공간이 유일무이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역과 가까워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꿈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방문할 기회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쉬움도 흘러갈 때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을 상기시키는 건축물과 만났다. 바로 ‘글라스하우스’라는 건물이었다. 글라스하우스는 통유리라는 외관과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쌍둥이인 듯 닮아있었다. 글라스하우스에도 흥미를 느껴 조사해 본 결과, 우연히도 글라스하우스는 일본의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이었다. 치노시민도서관을 만든 건축가와 관계는 없지만, 제주도에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물이 우연찮게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글라스하우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일본인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 몇 군데 더 있어서 놀랐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왕래는 어렵지만, 한국에서도 우연한 기회로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 뿐 또 다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기분이 되었다.

또 다른 경험은 일본에서 사랑니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을 때이다. 이때의 경험이 제주도와 일본의 문화가 닮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사랑니를 빼고 돌아가던 길, 우연히 지나가면서 마주친 신사가 계기가 되었다. 사랑니를 제거한 직후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이(齒)에 관한 신사, 하신사(齒神社)라는 곳을 지나갔다. 신사 앞에는 쓰다듬는 돌멩이(なで石)가 있었다. 쓰다듬으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쓰여 있어 고통이 심한 나머지 속는 셈 치고 돌멩이를 쓰다듬었던 기억이 있다. 한편, 제주도 여행 때 제주도는 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뱀뱀만 아니라 돌, 주방 도구 등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토속 신앙이라고 들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경험을 통해 제주도와 일본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모습이 서로 닮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문화가 닮아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문화교류가 있어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닮아있는 문화를 잘 활용한다면 제주도와 일본은 서로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국의 공통점이 없어 보였지만 앞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알면 알수록 의외로 서로 관련이 있거나 닮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본을 갈 수 없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항상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접하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를수록 이해하고자 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느꼈던 제주도와 일본의 감정은 극히 일부분일 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달라도 언제나 서로 하나같은 감정을 소중히 간직해 나가고 싶다.



(수상작 원본은 일본어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수상자가 작성함.)

다시 이어진 마음길

신정호



일본과의 인연은 고등학생 시절에 일본어를 배우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할 수 있었다. 마침내 2000년 7월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방위학 세미나에 초청되는 행운을 얻었다. 2주 동안의 빡빡한 일정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는 한 중년 부부와의 첫 인연을 마주하게 되었다.

코지마 부부(Shuichi & Noriko Kojima)는 내가 요코스카에 체류하는 동안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였다. 하루는 그분의 집에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 고즈넉한 정원이 있고, 다다미로 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 가옥이었다. 한 가족과 같은 따뜻한 환대와 다소 활동적인 이웃집 아주머니의 호탕한 웃음, 신선한 생선 덕분에 사케도 제법 많이 마셨다. 그날따라 화장실이 얼마나 좁게 느껴지던지 이쪽저쪽으로 몸을 부딪쳐 가며 그분들의 검소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해 10월 나는 실습 교관으로서 군함을 타고 해군 사관생도들과 함께 순항훈련을 떠났다. 일본을 비롯하여 환태평양 국가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마침 도쿄 항에 기항했을 때, 그분들을 함상 연회에 초청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배도 구경시켜 주었다. 이후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그분들과의 소식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서른이 갓 넘은 아들이 있다. 그는 다섯 해째 요코하마에서 제법 알려진 극단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일본 친구들을 좋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와 같이 제주에 살겠다는 녀석이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공연도 볼 겸 아들을 만나러 일본을 다녀오곤 했다. 요코하마에 갔을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요코스카에 그분들이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작년 가을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갈 즈음에 코지마 부부가 생각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의 옛날 전자우편 주소를 어렵사리 찾아내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무탈



하다는 소식이 왔다. 우리는 바뀐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집 주소, 가족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20년이 지났지만 두분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고, 아직도 서툰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부모가 되어 주고 있었다.

그분들은 내가 일본을 다녀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한국 유학생들을 돕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2010년에는 '일본 부모'로서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나도 해군의 고위급 장교가 되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터라 극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선 땅에서 짧은 만남으로 시작된 한 부부의 인연은 이곳에 내려옴으로써 다시 이어졌다. 그러니 제주는 그들과 연결한 징검다리인 셈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서로 왕래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나눌 생각이다. 제주도와의 이웃 섬나라 사이에 마음 길이 다시 이어졌으니, 그분들의 변치 않는 한국 사랑처럼 우리의 인연도 더욱 익어 가리라 믿는다.

26일짜리 전국일주를 통해서 느낀 나의 일본

유병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종조모께서 일본인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문화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여행으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여행한 횟수는 총 8회이며, 그 중에서 일본 본토 전국 여행은 두 번이다. 처음에 했던 전국 여행은 2008년 규슈의 후쿠오카부터 일본의 수도 도쿄까지 기차와 버스로만 다닌 17일짜리 반쪽 전국 여행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으며, 그러다, 2017년에 두 번째 전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규슈 후쿠오카에서 시작하여 홋카이도 비에이에서 종료된 26일짜리 완전한 전국 일주를 하였다.

내가 다닌 완전한 전국 일주의 행선지는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벵부→유후인→가고시마→이부스키→사세보→이즈모시→다카마츠→오사카→교토→도쿄→요코하마→가마쿠라→하코다테→삿포로/오타루→후라노→비에이



이런 여행을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한 전국 일주로 완성하고 싶었다. 그리고 처음에 했을 당시, 돈이 별로 없어 많이 접하지 못했던 일본음식을 요리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하니, 지역별로 접해보자 했던 취지도 있었다.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하고 4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내가 일본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통적이고도 정제된 자연스러움과 멋, 그리고 일본사람들만의 인심이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과정에서 나에게 예상 밖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즈모시에서 다카마츠로 가는 도중, 10만엔과 카드가 든 다이어리 지갑을 분실했는데, 옆 좌석에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 다음날 오카야마에서 지겨운 5시간 걸리는 첫 열차 타고 이즈모시 경찰서에 가서 찾았던 일, 나는 이때 '얼마나 다행인가~!'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더랬다. 이부스키에서 가고시마 속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폭우로 열차가 끊겨 버스 타고 1천엔 주고 2시간 동안 입석으로 갔던 일,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비어서 긴급으로 여행한답시고 하코다테 역 근처에서 갈매기 똥 맞아가며 첫 열차 올 때까지 밤새웠던 일, 내가 돈 모자라서 비박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일본인 여사님이 내가 그렇게 거절해도 1만 5천엔의 거금을 주며 홋카이도 여행 잘해보라고 격려 받은 일...

이러고 보면 나를 도와주었던 일본사람들도 한국사람처럼 정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테마에와 혼네가 확연히 구분되는 일본사람인 줄 알았건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후하지는 않아도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일본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나중에 내가 최근에 계획한 세 번째 전국 일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반대로, 일본인 친구가 제주도에 오면 내가 현지 가이드가 되어 이들에게 제주도의 맛과 멋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실제로도 '민간외교관' 자격증이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을 '가까이하는 절친 같은 나라'라고 부르고 싶다.

コーヒーが繋いだチェジュと私

커피가 맺어준 제주와 나

檜垣祐太郎(히가키 유타로)



2015年夏、私とチェジュ島との縁が始まった。私はハンドドリップを中心にコーヒーを勉強している。元々コーヒーを習っていた先生が韓国人の方ということがあって韓国のソウルにはよく行っていた。

ある日、知人がチェジュ島に行ってみようという突然の提案を受けて旅行することとなった。チェジュ島についての知識は当時まるでなかったのだが、空港に到着し海岸をレンタカーで走るときに感じたのは韓国でも日本でもない、言うならば沖縄にとても似ているという感覚だった。広大な自然、少し湿った海の風。山も海も青々とした光景が心に沁みた。今でも鮮明に覚えている。その時はチェジュ島のカフェをめぐるオルム(丘)にいくつか登った。それからチェジュ島へはたびたび行くようになった。

韓国で過ごす中で私はチェジュ島の方と触れ合うことが不思議と多かった。その縁もあってチェジュ島でいつも行くところは東側に位置する城山日出峰。近くに知人の家がありそこに泊めていただいていたのだ。

またその方がチェジュ島のオルムに登るのが趣味で何度も一緒に同行した。早い時には朝5時には家を出て一日中オルムに登る。最大8つのオルムに一日で登ったほどで一気にパワーをもらい、どんどんエネルギーに合うというハイペースぶりだった。登るのはしんどいけど山頂からの景色、そしてそれを見ながら食べるキンパとコーヒーの組み合わせが何ともやめられない幸せを与えるのであった。本当にこれはチェジュ島に来て皆さんに体験してほしいと心から思う。そんなこともあって今まで合計100個以上のオルムに登った。365個ほどのオルムがチェジュ島には存在するそうなのでいつか完全制覇も夢ではないなとも思っている。

チェジュ島との縁はさらに発展し、知人のサポートでカフェ経営にまで発展。2020年度から1年間カフェの運営を任せていただいたこともあった。バリスタとしてコーヒーを淹れながらマネジメントまで様々な経験をすることができた。

現在はソウルにあるカフェでコーヒーを淹れ続けている。それでもチェジュ島との縁が切れたわけではない。定期的にチェジュ島のカフェにゲストバリスタとして訪問することもある。またソウルの勤め先のカフェの社長に関しては最初にカフェをオープンした場所がなんとチェジュ島だというのだ。私とチェジュ島は切っても切り離せない縁ができてるように思える。

今後は自分自身のカフェやその他の交流スペースをチェジュ島、そして母国である日本にも建てたいという夢がある。夢の始まりの場所であるチェジュ島が今後も私にとって人生の活動拠点となるだろう。

2015년 여름, 나의 제주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핸드 드립을 중심으로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원래 커피를 배우고 있었던 선생님이 한국분이기에 한국 서울에는 자주 갔었다.

어느 날 제주도로 가보자고 하는 친구 말에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 결정되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주 공항에 도착하고 해변을 렌터카로 달리는 중 느낀 것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굳이 말하자면 일본 오키나와 같은 분위기였다. 거대한 자연, 조금 습기 많은 바닷바람... 푸른 바다와 산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그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난다. 그때는 제주도 카페를 다니며 오름을 몇 개 올랐다. 그리고 나서는 제주도를 자주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지역도 아닌 제주도와와의 관계가 신기하게도 많았다. 제주도 분과의 인연도 있어 자주 가는 곳은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성산 일출봉이었다. 주변에 그 지인 집이 있어 자주 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인분이 제주도 오름을 타는 것이 취미였던 것도 있어 나는 자주 그 취미를 함께 했었다. 아침 일찍 출발할 때는 아침 5시에는 출발하고 하루 동안 오름을 탄다. 많을 때는 하루에 8개 오름을 탄 적도 있었던 정도이다. 거대한 자연의 힘을 받아 실 틈 없이 다니는 속도는 남다른 것이었다. 오름을 오르는 것은 솔직히 힘들지만, 정상에서 보는 경치와 그곳에서 먹는 김밥과 커피는 어디서 먹는 것보다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이다. 아직 이것을 안 해보았다면, 정말로 제주도로 와서 직접 체험했으면 한다고 진심으로 느낀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오름을 타게 되었다. 제주도에 365개 정도의 오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모든 오름을 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와 나의 인연은 더 발전하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성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1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는 시간을 바리스타,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나 기술 등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커피를 내리고 있다.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와와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제주도 카페로 게스트 바리스타로 방문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현재 근무하는 서울 카페의 사장님도 처음에 제주도에 카페를 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와 제주도의 인연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카페를 열어 그 공간에서 커피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의 시작점인 제주도가 앞으로도 나에게 중요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수상작 원본은 일본어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수상자가 작성함.)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김소현



필자가 국제 교류원으로 속해 있는 ‘훗카이도’는 한국의 우호지역 네 곳과 교류를 실시해오고 있고, 제주와는 올해 벌써 우호제휴 체결 5주년을 맞이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라곤 비록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국제 교류원 생활을 계기로 훗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류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2년 전 겨울, 제주민요보존회 공연단 분들과 행사를 진행했던 일은 각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국 땅에서 들어보는 정겨운 가락은 물론이며, 삿포로를 방문해 주신 제주도 어머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진행했던 제주도 소개 세미나에 백 여명의 시선이 집중되던 순간들까지. 게다가 팬데믹 이전에 개최된 그 행사는 훗카이도와 제주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정서적 울림을 공유하던 ‘마지막 현장’이기도 했다.

시대는 불과 2년 사이에 크게 변했다. 올해 탐라문화제에서는 훗카이도 출신 성악 전공생과 제주 출신 성악가가 듀엣 공연을 펼쳤다. 훗카이도 측이 사전에 촬영해 보낸 소프라노 공연 영상에 맞춰 제주도 측의 바리톤 성악가가 함께 노래하는 ‘비대면 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아쉽게도 본 공연마저 동영상 파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작은 화면 너머로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고, 국경을 초월하는 음악의 힘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와 일본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업무 중 하나로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를 앞둔 훗카이도 측 학생들에게 제주도의 매력을 소개하는 연수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 포럼마저 랜선으로만 개최되다 보니 학생들이 귀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세상에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명소들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을 사진과 말로만 소개하며 학생들을 약 올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교류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디 ‘끈끈한 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던가. 양국을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제주도에는 홋카이도 민요 ‘소란부시’가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홋카이도에서는 ‘제주 민요’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를, 더 나아가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제주의 여러분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소개합니다.

예술·건축 (藝術·建築)



<이타미 준(伊丹潤)>

일본의 건축문화의 바람을 제주로 가져온 건축가의 작품군

일본과 한국 모두의 정체성을 가진 재일한국인 건축가, 故 이타미 준. 그가 남긴 포도호텔, 방주교회, 핑크스 골프클럽하우스 등 제주의 지역적 특징을 살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제주다운 건축물'은 일본으로부터 한국 건축계에 '풍토건축'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들였다.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제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민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 작품인 유민미술관.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섭지코지에 위치한 同미술관에서는 제주 땅의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제주의 풍토를 최대한 살린 건축을 추구한 안도 타다오의 작품은 제주를 넘어 한국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중섭>

한국과 일본, 양국과 인연이 깊은 화가의 '이중섭미술관'

일본과 한국, 양국과 인연이 깊은 화가 故 이중섭의 삶과 작품에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이중섭미술관'. 특히 그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아내와 아들에게 보낸 편지나 그림에 나타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절실하고도 순수한 마음이 감동적이다. 최근 새롭게 기증받은 작품 '삶섬이 보이는 풍경'에는, 현재 미술관에서 내려다보이는 서귀포 바다의 70년 전 모습이 담겨져 있어 감성을 자극한다.

<본태박물관>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과 일본인 아티스트의 작품들

한라산 남쪽 기슭 자연 속,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작품 '본태박물관'. 그의 건축을 상징하는 노출 콘크리트와 물, 한국 전통의 담, 그리고 주위의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시품으로는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의 '호박',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의 'Doggy Radio', 그리고 일본과의 인연이 깊은故 백남준의 작품 등 다양하다.



<기담미술관>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에서 찾은 제주와 일본의 인연

서귀포시에 위치한 '기담미술관'은 일본에서 화학공업으로 성공한 재일제주인 故 강구범 선생의 기증으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미술관이다. 제주 출신으로 일본에서 인정받은 화백 故 변시지 전 명예관장의 작품을 중심으로 지역예술가들의 작품도 소개되고 있다.

'소암기념관'은 한국 현대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서예가 故 현중화의 호를 딴 곳. 오랜 세월 일본의 서예 거장에게 배우고 제주로 돌아와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시켰다. 특히 초서체의 서체의 흔들림이 마치 제주의 바람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D&DEPARTMENT JEJU by ARARIO>
구도심 활성화와 일본인 디자이너의 콘셉트를 융합한 기업

디자이너 나가오카 켄메이(ナガオカ ケンメイ)에 의해 창설된 '룽 라이프 디자인'을 테마로 하는 스토어 스타일 활동체라는 콘셉트로, 일본 각지에 전개하는 D&DEPARTMENT. '제주에서의 룽 라이프 디자인'과 '제주의 음식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D&DEPARTMENT JEJU by ARARIO'는 제주에 뿌리를 내린 생활문화창조기업인 ARARIO는 탐동 지역 활성화를 진행하던 중 이 콘셉트에 공감하여, 일본의 '스키마 건축계획'의 나가사카 조(長坂常)에게 일괄적으로 건축리노베이션을 의뢰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여러분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소개합니다.

자연·산업 (自然·産業)



<한림공원>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찾은 제주 관광시설의 원조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로,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한림공원’. 창업자이신 송봉규 회장님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시며 제주와 일본의 관계에 공헌해 오신 분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작가 故 시바 료타로는 송회장님과의 만남에 대해서「탐라기행」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는 이를 기념하는 석비도 세워져 있다.



<제주올레>

제주와 일본을 잇는 올레길

제주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 코스인 제주올레는 일본에서도 관광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올레의 협조를 받아 먼저 규슈올레가 만들어졌고, 이어서 동북지방에 위치한 미야기올레도 추가되는 등 일본의 지역 활성화와 재해 부흥에도 일조하고 있다.



<(주)한라산소주> <(주)제주막걸리>

제주를 대표하는 제조업

현승탁 (주)한라산소주 회장님은 일본 주류업계를 참고하기 위하여 자주 일본을 찾아 깔끔한 맛의 소주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또한 ‘허벅술’은 1996년 제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만찬회에서 건배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당시)가 우리 총영사관을 개관하겠다는 뜻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본토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주막걸리는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판매되고 있다. 고상후 (주)제주막걸리 회장님은 제주막걸리 맛에 반한 일본 수입업자의 열정에 이끌려 일본에서 판매 시작. 그 후, 일본 측과 2인3각으로 연구·개선을 거듭하여 더욱 품질을 개선해 왔다.

<제주의 멋진 카페> 카페도 일본과 깊은 인연

제주에는 멋진 카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과 인연이 깊은 카페들도 있다. 도쿄에서 배운 제과 및 제빵 기술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트렌드를 상품에 반영하며, 서울 진출도 이뤄낸 'Maison de Petit Four'.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을 가게 이름으로 하여, 일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폴베개'. 그리고 너무나 친숙한 일본 출신의 캐릭터 '헬로키티'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헬로키티카페' 등 일본과의 거리감이 가까운 제주의 매력 있는 카페들을 즐길 수 있다.



<비자림>

시바 료타로의 시선으로도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인 숲

일본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부에만 분포하는 비자나무는 최고급 목재로 알려져 있다. 제주의 '비자림'은 그 중에서도 거의 단일수종으로 형성된 '단순림'으로서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며, 일본 일각에서도 특별하면서도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작가인 故 시바 료타로도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비자림'을 찾았다고 한다.



<감귤박물관>

제주와 일본의 교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주의 대표 농작물, 감귤

'감귤박물관'에서는 제주 감귤 농업의 발전 과정과 제주와 일본 간의 감귤을 통한 교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감귤을 둘러싼 인연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즈오카현과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와카야마시, 기노카와시와 각각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제주의 여러분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소개합니다.

전통문화 (傳統文化)



<감물염색>

제주의 전통문화는 일본과 공통되는 기법

제주의 전통문화인 '감물염색'의 '갈옷'은 작업복이나 일상복,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감물염색'은 일본에서도 사케(일본술)나 간장 등 양조업을 포함해 전통문화를 폭 넓게 지탱해온 대단한 소재로, 일본 국보인 마츠모토성 등 전통 건축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역사도 있다. 건축가 故 이타미 준도 감물염색에 주목하여 자신이 설계한 포도호텔 일부에도 그 원단이 사용되어 있다.



<당>

뿌리 깊은 공통점을 가진 제주와 일본의 신을 둘러싼 전통문화

제주는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으로, '1만 8천'의 신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현승환 제주대 교수님에 따르면, 제주와 일본은 알타이·통구스로부터의 북방의 영향,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온 남방의 영향, 그리고 도교의 영향이 혼재된 애니미즘·샤머니즘을 전통문화의 근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균형이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삼성혈> <혼인지>

제주 탄생의 개벽신화 속 제주와 일본의 인연

제주도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삼성혈'과 '혼인지'의 이야기. 삼공주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조선시대의 '고려사·지리지' 등의 관련 기술이 맞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삼성혈'은 일본에서의 단체 여행 코스에 포함되어 수많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또한 제주와 일본의 오랜 교류의 역사는 8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 「일본서기」의 기록으로도 확인되어 있다.

먹거리 (グルメ)

<옥돔>

제주의 소울 푸드

제주에서는 ‘생선’하면 옥돔. 일본에서도 고급 식자재로 꼽히는 옥돔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울 푸드로, 특히 ‘옥돔 뭇국’은 명절 음식에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만의 스페셜한 음식 중 한 가지인 ‘옥돔 미역국’, 제물의 주역으로 명절이나 제사상에는 반드시 올려야 하는 ‘옥돔구이’도 매력적이다.



<메밀>

일본에서도 제주에서도 사랑받는 곡물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곡물인 ‘메밀’. 제주에서도 메밀은 예로부터 귀중한 곡물로 사랑받아 왔으며 제주에 오랜 신화에서도 ‘오곡’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제주의 메밀은 한국에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며, 계절마다 활짝 피는 메밀밭의 하얀 꽃은 제주의 관광자원으로도 한몫하고 있다. 메밀 수제비를 무와 멀치로 만든 옥수로 끓여낸 ‘조배기’, 그리고 메밀가루로 만든 피에 채로 썬 무 등의 채소가 돌돌 말려져 있는 ‘빙떡’ 등이 전통요리로 사랑받고 있다.



<한치>

제주의 여름 대표 먹거리

한국 본토의 ‘한치’는 ‘화살꿀뚜기(화살오징어)’(=야리이카)인데, 제주에서는 ‘창꿀뚜기(창오징어)’(=켄사키이카)이다. 제주와 똑같이, 서귀포시의 자매도시인 사가현 가라쓰시의 명물로 널리 알려진 ‘요부코 오징어(呼子イカ)’도 여름에는 ‘창꿀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물회’를 비롯해 회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운 양념으로 버무린 ‘한치 주물럭’으로 유명한 식당도 있다.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책자로 엮으며



1996년 6월 22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던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는 만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주한일본대사관 주재관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격상한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1일, 우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 후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총영사관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테마로 한 ‘제주·일본 에세이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는 원래 일본과의 관계가 깊어서 총영사관 개설에 대해 강한 요망이 있었는데, 입선작 5작품을 보고 있으면 새삼스레 제주와 일본의 인연의 형태가 깊고도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인연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응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더 많이, 더 다채로운 여러분의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총영사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가운데 몇몇 기사를 이 책자를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일본과의 왕래도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영사관 일동은 다음 25년을 향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껏 보내주신 25년 간의 애정과 협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을 부디 부탁드립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

이세끼 요시야스

井関 龍太郎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관련
홈페이지 및 공식 SNS계정 안내



홈페이지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jejulistko_00001.html



Facebook

www.facebook.com/japanjeju



Instagram 이세끼 요시아스 총영사 공식계정

www.instagram.com/japan_consulgeneral_jeju/

